

시에라리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71,740 km ²	G D P	21.1억 달러(2011년)
인구	550만 명(2011년)	1인당 GDP	328 달러(2010년)
정치체제	공화제(Unitary Republic)	통화단위	Leone(Le)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4,336

-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은 기니, 라이베리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1/3에 해당하는 국토에 5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12년간의 내전으로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고 노동인력을 상실하여 경제는 최빈국 수준이나, 다이아몬드,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선출된 코로마 대통령의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국제 원조를 바탕으로 국가재건계획을 추진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6.4	5.5	3.2	4.9	5.6
재정수지 / GDP	-2.0	-4.7	-3.2	-4.7	-5.7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14.8	9.3	16.7	18.0

자료: IMF, EIU

□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세 지속

○ 2002년까지 12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고 노동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내전 종식 이후 2003~07년 중 광업과 농업의 발전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이 연 7%대를 기록하였음.

- 2005년 금홍석, 2006년 보크사이트 생산이 재개되며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함.

○ 특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2010년부터 30여 년만에 철광석 생산이 재개되면서 경제는 빠른 성장세에 들어섰으며, IMF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무려 5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

○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에 세율 15%의 상품·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였음.

○ 그러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2011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증가한 5.7%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연 20%에 육박

-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사회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재정지출의 영향으로 2003~07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11%에 달하였음. 2009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은 세계 경제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것임.
- 2010년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철폐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16.7%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광산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해져 18%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됨.
- 경제가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나라가 물가 및 환율이 상승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빠지는 현상('Dutch Disease')이 우려되기도 함.
- 2012년 들어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인 쌀의 가격을 인하하였고 긴축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8.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서 다이아몬드가 총 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작아 외국인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빈곤 해소 및 생활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 내전이 발생한 주요 원인도 다이아몬드 채굴과 관련한 이권 다툼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부정부패와 비공식 유통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함.
- 1999년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확보를 위해 혁명연합전선(Revolutionary United Front: RUF)이 일으킨 내전은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

러까지 가담하여 12년간 계속되었음. 더구나 내전 당시 반군은 7,000여 명의 성인 남녀의 팔, 다리를 절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음.

- 현재도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비공식 유통량이 공식 통계량의 3배에 이르는 등 거대한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음.

□ 인적자원 부족

- 내전 과정에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전 인구의 1/3인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노동인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 난민들이 귀국하여 최근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는 2012년 기준 550만 명에 불과함.

□ 여전한 부정부패 만연

- 코로마대통령은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ACC)를 설립하고 2009년 전면 개각을 단행한 바 있으나, 최근 고위인사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재발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전 보건부장관과 전 APC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산해양부장관이 부정부패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에도 부통령 Samuel Sam-Sumana이 뇌물을 받고 불법 벌목을 허가한 사건이 보도되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높은 품질의 다이아몬드 및 금홍석 생산국
- 다이아몬드와 금홍석(rutile, 타이타늄의 주요 원료)이 총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대의 금홍석 매장량(세계 매장량의 25%, 1위)을 자랑하며, 특히 시에라리온의 금홍석은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비용이 낮아 경쟁력이 높음.
- 2000~03년에 UN의 제재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은 2002년 10만 캐럿에서 2006년 37만 캐럿으로 급증하였음.

○ 30여년 만에 철광석 수출 재개

- London Mining이 2010년에 Marampa 광산(추정매장량 10억 톤)에서 철광석 생산을 재개하여 2011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African Minerals도 Tonkolili(추정매장량이 128억 톤, 세계 최대)광산에서 2012년 1분기부터 철광석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Marampa 광산은 35년 전에 당시 철광석의 국제 가격이 낮아 폐쇄되었음.

- 철광석 수출이 재개되면서 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2012년에는 철광석이 다이아몬드를 제치고 최대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총 수출규모도 현재보다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차 빈곤축소계획(Seco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8~12)

- 정부는 2002년 이후 국가회복전략(National Recovery Strategy)을 수립하여 인프라 재건을 위해 노력 중임.
- IMF의 지원으로 2005년에 시행된 제1차 빈곤축소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후 2008년부터 2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4000km의 도로 및 도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09년 Bumbuna 수력발전소가 설립되는 등 사회 기본 인프라 구축작업이 이루어졌음.
- 2009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의 평균 기대수명은 48세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무료 보건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이후 보건제도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의 숫자가 214% 증가하였으며, 임신 중 사망률과 말라리아 치료를 받는 어린이의 사망률이 각각 61%, 85% 감소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부의 예산문제로 2012년에는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음.

□ 수출다변화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 추진

- 2010년에 정부는 4대 산업(농업, 어업, 광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수출다변화전략을 발표함.
- 다이아몬드와 금홍석이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변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 특히 동 전략 실행 이후인 2011년에만 관광업이 2배 이상 성장하며 큰 성과를 보였음. 광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업의 발전이 향후 실업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원개발에 대한 법안 제정으로 정부의 통제력 강화

- 2009년에 광산·광물법(Mines and Mineral Act)을 제정하여 다이아몬드와 주요 광물에 대한 로열티를 인상하고 외국기업의 광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였음.
- 과거에는 투자 유치를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제도를 무시하였으나, 코로마 대통령 집권 이후 국영광물청(National Minerals Agency)을 설립하고 채굴업투명성계획(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을 발표하였음.
- 2011년에는 러시아의 시에라리온 원유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석유법(Petroleum Act)을 통과시켜 원유탐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높였음.
- 동 법안에 따르면 해안지역의 원유탐사 시 국영석유회사(Sierra Leone National Oil Company)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며, 남동부 지역의 원유 개발 시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217	-300	-291	-483	-943
경 상 수 지 / G D P	-12.8	-15.0	-15.3	-25.4	-47.2
상 품 수 지	-106	-197	-242	-373	-842
수 출	289	274	270	363	472
수 입	395	471	512	736	1,314
외 환 보 유 액	186	190	215	225	407
총 외 채 잔 액	550	632	698	773	616
총 외 채 잔 액 / G D P	33.1	32.3	37.6	40.5	29.2
D S R	6.9	3.6	6.5	5.8	5.7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 원유와 식품,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총 수입액 7.4억 달러 중 원유(1.7억 달러), 식품(1.1억 달러) 및 자본재(2.5억 달러)가 70% 이상을 차지하였음.
- 2011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자본투자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의 2배 이상인 8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경상수지도 9억 달러를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 외환보유액

- 철광석과 원유의 개발 붐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자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전년의 2배 수준인 4억 달러로 추정됨.

□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외채부담 감소

- 내전 종식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15억 달러에 이르던 외채는 2006년 HIPC 적용과 파리클럽의 리스케줄링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GDP의 29.2%인 약 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만기 도래분 외채 3.6억 달러 중 3.2억 달러를 탕감받고 0.4억 달러를 리스케줄링하였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민주화의 과도기적 상태

- EIU가 평가한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은 167개국 중 106위로 아직 완전한 민주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hybrid regime), 상대적으로 선거 과정·절차의 투명성이 높고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여 정치적 환경이 좋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여당인 전인민회의당(All People's Congress: APC)과 시에라리온국민정당(Sierra Leone People's Party: SLPP)를 비롯하여 PMDC, NDA 등 5개의 정당과 부족대표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

□ 2012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혼란 우려

- 코로마(Ernest Bai Koroma) 대통령은 일련의 정책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2012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야당인 SLPP는 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NEC)의 의장 임명과 관련하여 Christiana Thorpe이 의장직을 수락할 경우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선거 이후 혼란이 예상됨.
- Christiana Thorpe는 2007년 대선에서 NEC 의장으로서 동부 지역 477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선거에서 패배한 SLPP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여 왔음.

- 내전 종식 이후 주둔하고 있던 UN사절단이 2012년 2월에 대통령의 요구로 출국하였으며, 200여 명의 UN 평화유지군만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선거 진행과정을 집중 감시할 예정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

-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2010년에는 시민들과 부패경찰들 사이에서 충돌 및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일부 지역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 발생

- 2011년 9월 동부의 Kono에서는 내무부 장관인 Musa Tarawalli이 공격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1주일 후 SLPP에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Julius Maada Bio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 이에 대한 보복으로 SLPP에서는 APC의 사무소에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함.
- Julius Maada Bio는 과거에 쿠데타를 이끌었으며, 내전 당시 반군의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여 일부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음.

3. 국제 관계

□ 유럽과 오랜 교류 지속

- 1961년 독립한 이후에도 구종주국인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연방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
- 최근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벨기에를 비롯해 루마니아(13%), 네덜란드(6%)등 유럽국들이 중요한 교역국임.

□ 비동맹중립노선으로 인접국가들과 협력관계 계속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¹⁾와 아프리카연합(AU)의 회원국으로 인접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계속하고 있음.
- 다만 내전 당시에 반군을 지원하였던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와는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 내전 당시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UN 평화유지군이 가장 많이 파병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내전 이후에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AU의 회원국으로서 2010년에 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말리아에도 파병할 예정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단기외채상환부담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외채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채의 대부분이 공적자금 형태로 지원된 것이어서 단기 상환부담은 작은 편임.
-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 비중은 5% 미만이며, D.S.R.도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HIPC 적용과 파리클럽의 리스케줄링이 있었으며, 2010년에도 IMF는 장기신용대출프로그램을 통해 4,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1) 1975년 설립. 베냉, 카보베르데, 잠비아, 가나, 가나비사우,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음.

□ **성실한 외채 상환기록**

- 2010년까지 증가하던 외채잔액이 2011년 들어 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이 계속 증가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음.
- 2011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 지원잔액은 단기 1.2백만 달러 중장기 11.1백만 달러이며 연체기록은 없음. IMF 및 세계은행에도 연체 기록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는 2011년 9월 평가에서도 2010년과 동일한 7등급(최하등급)을 유지 하였음. 3대 신용평가사는 시에라리온에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STIPP(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 경우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62. 6. 25.수교(북한과는 1971. 10. 18.)

□ **주요 협정** : 의료협정('69), 문화협정('79),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81)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3,111만 달러로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을 중심으로 2,974만 달러, 수입은 기타금속광물 및 어류를 중심으로 138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시에라리온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5,734	10,113	29,73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 입	658	5,003	1,375	기타금속광물, 어류
합 계	6,392	15,116	31,11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1년 12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1건, 45천 달러

V. 종합의견

- 시에라리온 경제는 2002년 내전 종식 후 다이아몬드와 금홍석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철광석의 생산, 수출이 30여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코로마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보건, 전력 등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에서 연임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환보유액과 GDP가 증가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었고 낮은 D.S.R.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시에라리온의 경제 재건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유나영(☎02-3779-5724)
E-mail: smilenayoung@koreaexim.go.kr